

[보도 참고자료] 쿠팡 고양 물류센터 오늘 재가동

2020. 6. 12.

- 최초 확진자 1명 외 1601명 검사 결과 추가 확진 0명
- 수차례 정밀방역 후 보건당국 확인 완료

2020. 06. 12. 서울 – 쿠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폐쇄했던 고양 물류센터를 12일 재가동한다.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확진자 발생 후, 쿠팡은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물류센터 근무자 등 접촉자 160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어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쿠팡 고양 물류센터의 사무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어, 쿠팡 측은 즉시 해당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매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재가동을 앞둔 지난 9일에는 대규모 인력과 전문 장비를 투입하여 정밀방역을 마쳤다.

이로써 쿠팡 고양 물류센터는 폐쇄한 지 15일 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